금주의 법구-〈법구경〉
쉬지 않고 계속하면
마침내 이뤄진다.
시냇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3월 16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제1143호 2017년 4월 12일 수요일

사찰 노인대학, 신도 평생교육 이끈다

[진단] 사찰 노인대학 활성화 방안은?

"군에서 전역 이후 손자 · 손녀 봐주는 것 말고는 무료했는데, 사찰에서 다른 곳에서는 듣지 못하는 강의를 듣고 도반들도 만나니 참 좋네요."

대구에 사는 문관도 씨(70)는 매주 화요일이면 활력이 넘친다.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이 올해 1월부터 개학한 노인대학에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문 씨는 "불교교리나 사상 등은 이미 사찰에서 많이 배웠다"며 "건강과 손자 손녀 교육에 관심이 많은데, 사찰에서 하는 노인대학 강좌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사찰이 진행하는 노인대학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노인대학을 신도 평생교육을 위한 새로운 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어르신들 다양한 교육열 충족

노인대학은 노인 복지시설 중 복지관, 경로당과 달리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취미 및 소득보장,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불교계에서 가장 최근 노인대학을 개설한 곳은 서울 조계사다. 서울 조계사(주지 지현)는 3월 24일 조계사 노인대학인 '백송대학' 문을 열었다. 백송대학은 생활습관건강법, 금융사고예방, 스마트폰활용법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매주 금요일마다 강좌가 열리며 1년 2학기제로 운영된다. 조계사 측은 당초 80명 정원으로 모집을 진행했으나 169명의 입학생이 몰려 2개 반으로 분반해 운영하고 있다.

불교계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봉은사 연화대학은 1990년부터 27년간 운영되고 있는 장수 프로그램으로 현재도 평균 110여 명의 어르신이 수강하고 있다. 봉은사는 연화대학 어르신들이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학기당 6명을 선정해 장학금을 수여한다. 또한 연화대학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연화시니어봉사단도 있다. 5년 전인 2013년에 비해 2017년에는 10%가 증가한 121명이 입학을 신청하는 등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인기에도 사찰 참여는 '미미'

이러한 인기에도 사찰 노인대학은 서울 봉은사, 조계사, 대구 불광사와 부산 흥법사 등 네 곳으로 파악됐다. 불교계에 문화강좌는 많지만 이를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스템화한 노인대학은 극소수였다. 불교계가 수탁하는 복지관이 190여 곳에 이르고 불교교리를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불교대학이 140여 곳에 달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다.

보건복지부 2016년 현황자료에 따르면 노인대학은 1377곳으로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이런 움직임에 이미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13년 사단법인 한국노인대학복지협의회 회원사 중 개신교계는 132곳, 가톨릭계는 73곳이었다.

사찰들의 관심이 부족한 이유는 강사 배정과 문화 강좌 커리큘럼 구성 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앞선 사찰들도 각각 5~10만원 수준의 강의료를 받고 있지만 재정적 부담 속에 신도 서비스 차원으로 진행하고 있다.

조계사 교육국장 승묵 스님은 "규모가 작은 사찰의 경우 재정문제와 외부 강사 섭외의 한계, 프로그램 개발의 어려움, 기성 신도 수 부족 등으로 노인대학 개설을 주저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노인대학 시스템을 갖추면 지자체에서 강사 파견 등 지원한다. 복지관과 달리 사찰에서 강좌를 진행해 포교에도 적합하다"고 강조했다.

홍법사 평생교육원 이름으로 노인대학을 운영 중인 홍법사의 진창호 종무실장은 "요가, 악기연주 등 강좌를 진행하는데 지자체로부터 강사 파견을 무료로 지원받고 있다. 최근에는 정식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1월 15일 노인대학 과정을 개설한 대구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주지 돈관)은 기존 불교대학의 인력풀을 적극 활용한 경우다. 경북불교대학 노인대학에는 예상보다 많은 65명의 어르신들이 입학했다.

신문희 경북불교대학 학사담당자는 "지역 동사무소에 노인대학이 없어 입학자 중 절반 가량인 30여 명이 외부 어르신들이다. 기존 불교대학 자문단으로 구성된 대학 명예교수들이 힘을 보탰다"고 소개했다.

신도 재교육 차원서 '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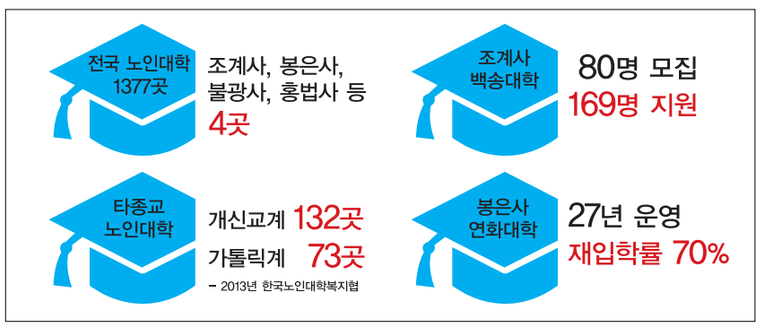
노인대학은 어르신 포교 뿐만 아니라 신도 재교육 및 유지 차원에서도 필수란 지적이 많다. 김영환 봉은사 교육국 팀장은 "노인대학은 평생 신도교육 시스템"이라며 "문화강좌 위주의 노인대학은 지속 동참 가능하다. 봉은사만 해도 재입학률이 70%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조계종 포교원 교화팀 관계자도 "현재 신도 재교육 차원에서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다. 현재 신도 재교육은 권고사항에 불과하지만 지속적인 신도관리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사찰 신도를 대상으로 재교육에 대한 의향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인대학 성패는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의 질이 관건이다. 조계사의 경우 기존 불교대학이나 합창단 프로그램과 유사한 청춘학당을 2016년 개설했으나 입학자가 40명을 밑돌아 폐쇄했다. 이에 대해 승묵 스님은 "청춘학당과 달리 백송대학은 스마트폰 강좌 등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으로 새롭게 커리큘럼을 짰다. 어르신들의 요구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수준 높은 강사진이 중요하다. 불교 사상을 담은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노덕현 기자**

종교계 노인대학 현황



고령화에 관심 · 참여 높아져
신도 재교육 · 동기부여 효과
재입학률 70%, 평생교육 수단

불교계, 4곳 정도 운영에 불과
강사 커리큘럼 구성 · 재정 문제
"지자체 지원 및 불교대학 활용"



광화문 광장에 피어 오른 '화합과 평화'의 불

"활활 타오르는 이 평화의 불처럼 이 땅에 화합과 평화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4월 5일 광화문 광장서 개최한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평화의불 점등식에서는 불자들과 사회 각 분야 지도자들이 한마음으로 평화를 기원했다. 봄비가 내리는 와중에 우의조차 입지 않는 열정을 보이는 스님들의 모습이 가슴을 더욱 뜨겁게 한다. 〈관련기사 5면〉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도난 성보, 오욕 세월 건너 본래 자리로

조계종 · 피해사찰協, 4월 4일 이운 고불식

2014년부터 회수된 48점
전국 사찰 원소장처 환수

宗·警·官 협력 우수 사례
"성보 환수운동 계기되길"

도굴꾼과 장물업자들로 인해 원 소장처인 사찰에서 떠나 은닉됐던 성보 문화재들의 환지본처(還至本處)가 이뤄졌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자승)과 도난불교문화재피해사찰협의회(회장 지거)는 4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 로비에서 '다치 찾은 성보' 이운 고불식을 봉행했다.

이날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된 성보들은 31건 48점. 이들 성보는 짧게는 14년, 길게는 30년 이상을 도난 범죄로 인해 본래 사찰에서 떠나있었다.

이들 성보들이 본격적으로 환수되기 시작한 것은 2014년 조계종과 문화재청, 경찰청이 협력 MOU를 맺고 은닉범을 검거하면서부터다. 조계종과 기관들은 회수된 성보들의 법적 절차 및 소유권 환부까지 완료하고, 불교중앙박물관에 임시보관해 왔다.

이날 고불식은 박물관에 보관된 성보들을 원소장처로 환지본처함을 부처님께 알리는 자리였다.

고불식 참여 대중은 송광사 주지 진화 스님이 대표 낭독한 고불문을 통해 "도난된지 수십 년만에 나투신 이 성보들은 종단과 문화재청, 경찰청 등 국가 기관이 함께 협력해 회수한 큰 원력의 결과물"이라며 "오늘 고불식의 인연과 부처님의 가피로 도난당해 소식이 묘연한 모든 성보들이 청정한 도량으로 돌아오기를 앙망한다"고 기원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치사를 통해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국민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귀중한 성보가 하루속히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 달라"면서 "많은 문화재가 제자리를 떠나고 불법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우리 사회에 환기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이운 행사에서는 원 소장처까지의 여법하고 안전한 이운을 기원하는 의미로, 석가모니불 정근에 맞춰 피해 사찰 주지스님과 사부대중이 유물 운송차량까지 성보를 이운했다.

해당 성보들은 4월 7일까지 전국의 원 소장처 사찰과 위탁보관소 16개소로 이운돼 봉안됐다. 또한 조계종 문화부는 48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 대비사 영산회상도, 청도 용천사 영산회상도, 순천 송광사 지장시왕도 등 불화 6점을 문화재청에 보물 지정 신청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선운사 삼사순례 안내

삼사 성지순례는 영험깊은 기도도량을 순례하며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 지극한 심신으로 업장소멸을 다짐하는 불교의 오래된 풍속입니다.

강학과 수선도량 선운사는 미륵지장기도성지 **도솔암**과 참회수행도량 **참당암**이 자리잡고 있어 성지순례의 최적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사찰경내에 **대형저수지(도솔제)**가 자리잡고 있어 방생법회와 삼사 성지순례의 명소입니다.

유서깊은 기도도량의 순례를 통해 신심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1코스 : 선운사 ⇨ (5분) ⇨ 도솔제(방생)(5분) ⇨ 참당암(5분) ⇨ 도솔암

2코스 : 도솔암 ⇨ (5분) ⇨ 도솔제(방생)(5분) ⇨ 문수사(고창) ⇨ 문수사(부안)

오시는 길

- 서울출발 : 경부고속도로 → 천안 논산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부산출발 : 남해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대구출발 : 88올림픽고속도로 → 담양 고창 고속도로 → 서해안 고속도로 → 선운산 I.C → 선운사(약 3시간 소요)

※ 사전 연락주시면 사찰안내 및 방생 편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 대형버스 진입가능.


선운사 강학과 수선 도량


도솔암 도솔천 내원궁 해동 제일 미륵 · 지장보살 성지


청량산 문수사(문수보살 기도성지)


능가산 내소사(서해제일 관음기도도량)


참당암 참회수행도량


방생 최적지 도솔제 (경내 차량 5분거리에 위치)

■ 문의 : 선운사 종무소 063)561-1422 / 도솔암 063)564-2861 / 내소사 063)583-7281 / 문수사 063)562-0502 전북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선운사 http://www.seonunsa.org/